

전기료發 공공요금 인상 후폭풍 오나

연료비 폭등 여파 에너지값 연쇄 인상 불가피 가스·철도·상하수도 요금까지 하반기 오를듯

정부가 당초 방침과 달리,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전기요금 발 물가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초부터 물가가 심상치 않게 움직이면서 상반기는 공공요금을 동결했지만 차츰 '동결'만으로는 해결되기 힘든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정부 당국과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에 따르면 연료비 폭등으로 인해 각종

에너지 요금의 인상폭이 누적되고 있어 하반기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상반기 전기요금 인상이 무산된 한국전력은 전력 구입비가 크게 늘면서 올해 1·4분기 2천19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손익은 2천997억원으로 61% 격감했다. 발전연료인 유연탄 가격이 2배 가량 폭등하고 원유가격이 배럴당 120달러대까지 상승하면서 액화천연가스

(LNG) 가격이 덩달아 급등한 탓이다. 이재훈 지경부 2차관은 지난 22일 "지난해 7.6%, 올해 상반기 5.5%의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했다"면서 "내년은 너무 늦으며 올해 안에 어떤 형태로든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기료 인상을 허용할 경우 그 다음 수순은 LNG 가격급등을 반영한 가스요금 인상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가스공사는 매 출수월마다 연료도입가와 설비투자비 등 여러 요인을 반영해 가격을 조정하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로 상반기에는 이를 조정하지 못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동결

방침이 있는 지 봐야겠지만 LNG가격이 급등한 만큼, 7월에 조정요인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2월과 5월, 8월과 11월 네 번 열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지역난방공사 역시 지난 2월과 5월은 동결했지만 연료비 급등을 감안할 때 다음 조정시기인 8월에도 동결이 가능할지 의문인 상황이다. 정부가 상반기 동결을 결정한 철도, 고속버스요금 등 중앙공공요금과 지하철, 시내버스요금 등 지방공공요금도 연료비 부담으로 인상압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버스업계 관계자는 "경유가격이 휘발유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 가격 역전현상

이 나타나면서 통상 30%선이었던 버스 운임비중 연료비 비중이 38%선까지 올라갔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상·하수도 요금이나 쓰레기 봉투료와 같은 지방공공요금들도 정부의 '상반기 동결' 방침으로 인상이 보류되거나 하반기 또는 내년 초로 미뤄졌을 뿐 인상요인이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동결방침이 풀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기요금이나 여타 에너지 요금이 올라갈 경우 나머지 공공요금을 무한정 묶어둬 명분이 없다는 점이 부담이다. 정부 관계자는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간 요금을 동결할 경우 이후 가격급등 요인이 더 누적되는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에너지·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해도 인상시기를 분산하고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원유·조선·부동산 등 '실물펀드' 관심 높다

고유가·인플레이 우려 대안투자 각광

천정부지로 치솟는 국제유가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속에 '실물펀드'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자산이 아닌 원유·광물·선박·부동산 등 실물에 투자하는 실물펀드는 인플레이션 헤지기능이 있는 데다 원자재의 가격상승에 따른 수혜가 기대돼 대안투자의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접근이 쉽지 않은 데다 투자자산에 따라서는 투자위험도 큰 편이어서 투자의 효율성을 살리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25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실물펀드는 2006년 말 국내 처음 도입된 해외자원개발펀드인 '유전개발펀드 1호' 이 펀드는 설정 이후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분기별로 지급되는 배당수익이 꾸준히 늘고 있다. 작년 1월 말 지급한 1기 배당수익률은 연 7.52%였으나 올 1월 말 4기에는 12.20%로 상승한 것. 설비정비로 원유 생산이 일부 중단됐던 5기 7.3%로 낮아졌던 배당 수익률은 6기에는 다시 10%대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말 설정된 또 다른 해외자원개발펀드인 '하나 UBS암바토도 니켈 해외자원개발펀드'는 1천300억원 규모로 광업진흥공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도 니켈 광산에 투자하고 있다. 만기는 11년으로 생산 준비 기간인 2010년 3월까지의 반기별 배당 6.5%의 배당금을 지급한다. 이후 니켈 생산이 본격화되면 배당금이 연 10~16% 전후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내 실물펀드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펀드로 지난 4월 초 해지된 '골드브릿지특별자산22'는 1년여의 운용기간 동안 연 14.44%, 2월 말 해지된 '맵스프린터부동산7'은 3년 동안 13.37%의 비교적 높은 수익을 제공했지만 대부분은 수익률이 채권 금리보다 조금 높은 연 6~8% 수준이다. 이밖에 '하나UBS바이킹선박펀드특별자산'처럼 대형 선박에 투자해 수익을 거두는 선박펀드도 비교적 널리 알려진 편이다. /연합뉴스

사교육비 16% '경중'

가구당 평균 16만원 ... 소득상하위 20%간 격차 6배

도시에 거주하는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이 16% 급증해 물가급등에 따른 가계부담을 더욱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6만5천원으로 관련 통계작성을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많았다.

25일 통계청의 1·4분기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도시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학원 및 개인교습비' 지출은 16만4천657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4만2천319원에 비해 15.7% 늘었다.

이는 통계청이 가계수지 조사에서 학원 및 개인교습비를 별도 항목으로 분류한 2003년 1·4분기(10만8천128원)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5년 만에 52.3%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소득 증가율(31.8%)과 소비지출 증가율(28.6%)을 크게 웃돌았다.

학원 및 개인교습비 지출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2·4분기 10.2%, 3·4분기 11.9%, 4·4분기 10.7%, 올해 1·4분기 15.7% 등으로 4분기 연속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또 1·4분기 기준으로 사교육비 지출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5.5%였지만 2004년 5.9%, 2005년 5.7%, 2006년 6.4%, 2007년 6.0%, 2008년 6.6%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분기별 가구당 월평균 학원 및 개인교습비 지출

분기	학원 및 개인교습비(원)	
	전국가구	도시가구
2008 1/4	150,572	164,657
2007 4/4	139,779	149,174
2007 3/4	143,098	152,054
2007 2/4	139,919	148,618
2007 1/4	134,340	142,319
2006 4/4	126,812	134,723
2006 3/4	128,172	135,911
2006 2/4	127,588	134,877
2006 1/4	135,227	144,237
2005 4/4	126,126	134,531
2005 3/4	126,549	134,603
2005 2/4	119,831	126,013
2005 1/4	116,672	123,674

사교육비는 저소득층 가계에도 상당한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1·4분기 소득기준 하위 20%(1분위)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작년동기대비 7% 증가에 그쳤지만 '보충교육비' 지출은 16.4% 급증했다.

특히 1·4분기 1분위의 월평균 보충교육비 지출은 5만4천878원인데 반해 5분위는 32만9천389원으로 소득상·하위 20%간 사교육비 지출의 차이는 6배에 달했다. 이는 소비지출의 차이 3.2배

보다 훨씬 큰 사교육비 양극화가 소비 양극화에 비해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사교육비 분야의 물가가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가파른 오름세를 보여 사교육비에 따른 가계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4월 물가상승률은 대입학원비(종합) 7.3%, 대입학원비(단과) 6.5%, 보습학원비 6.3%, 고입학원비(종합) 6.1%, 고입학원비(단과) 5.7% 등으로 총지수 상승률 4.1%를 크게 웃돌았다.

한편 전국가구를 기준으로 작성한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학원 및 개인교습비 지출은 15만572원으로 작년동기대비 12.1% 급증했으며 통계작성을 시작한 2003년 1·4분기에 비해서는 48.0% 늘었다. /연합뉴스

현대경제연구원 성장률 4.9%로 하향

현대경제연구원이 25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1%에서 4.9%로 0.2%포인트 하향조정했다.

연구원은 이날 '한국경제 다섯 가지 패러독스'라는 보고서에서 급격한 소비 위축으로 내수경기가 부진이 우려되며 수출경기도 전반적 호조 속에 하반기에 다소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해 10월 제시했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 연구원은 내수경기와 관련, 구매력 저

하로 민간소비가 3.4% 증가하는데 그치면서 전체국면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가운데 경기하강으로 기업투자 심리가 위축돼 설비투자도 6.5% 늘어나는데 그쳐 대체·보완투자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출경기와 관련해서는 대 선진국 수출은 부진할 수 있지만 신흥국 수출확대가 이를 상쇄시켜 전반적인 수출경기는 16.6% 늘어나는 등 호조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원은 말했다. /연합뉴스

로도복권 (제286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1 15 19 40 42 44	17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3,236,566,300	3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59,936,413	27
3 5개 숫자 일치	1,566,586	1,033
4 4개 숫자 일치	66,246	48,857
5 3개 숫자 일치	5,000	857,882

팝콘복권 (제109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5억	2주 973118
		5주 860861
2	1억	4주 305818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3	1천만	각주 82968
4	1백만	각주 8914
5	50만	각주 78
		각주 16
6	2천	각주 51
		각주 8
7	1천	각주 0
		각주 7



깜찍한 러시아 인형

한국수입업협회가 최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2008 수입상품전시회'에 몰린 관람객들이 러시아 인형 마트로서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올 임단협 순조 ... 자동차만 '안갯속'

고유가 등 경영환경 악화 ... 무분규 타결도

기아·현대차 28일, 29일 각각 교섭 예상

본격적인 임단협 시즌이 다가오면서 올해 각 기업의 노사협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고유가와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인해 경영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각 기업은 어려운 상황속에서 활로를 찾기 위해 노사간 원만한 협의를 통한 임단협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완성차 업계의 경우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제시한 새로운 형태의 중앙교섭인 대각선 교섭(개별사업장을 상대로 산별노조가 벌이는 교섭)에 대해 현대차가 거부사를 보이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무분규 타결 계속된다' = 조선업계의 경우 수주호황 등에 힘입어 앞으로 진행될 임단협의 큰 걸림돌은 없는 상황이다.

현대중공업은 14년 연속, 대우조선해양은 18년 연속 무분규 타결이 점쳐지고 있다.

포스코도 올해 임금협상에 있어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해 2007년과 2008년 기본임금을 각각 2만원, 6만원 인상기로 합의함으로써 일찌감치 올해 임금협상을 마친 상태다.

고유가로 허리가 휘청이는 항공업계는 대체로 임금이 동결되는 분위기다. 대한항공 노동조합은 지난해 말부터 유가 폭등이 지속되자 3월에 올해 임금을 동결하기로 하고 단체협약에 대한 권한도 사측에 위임했다.

아시아항공 노조는 내달 중순 대의원 회의를 열고 임금협상안을 사측에 제시할 예정이지만 최근 고유가로 경영환경이 좋지 않아 강하게 임금인상을 주장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車업계는 오리무중 = 작년 금속노조와 완성차업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산별 중앙교섭이 불발에 그치자 금속노조는 올해 중앙교섭의 또다른 형태도 금속노조가 개별 사업장을 직접 찾아 사측과 협상하는 '대각선 교섭'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등 3개사 사측은 대각선 교섭을 거부하며 참석하지 않고 있다. 중앙교섭 요구안중 상당수가 단일기업이 다룰 수 없는 사안이고 이중교섭의 폐해 때문이라는 게 불참이유다. 하지만 GM대우가 지난 22일과 23일 대각선 교섭에 전격 참여함에 따라 이후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등이 결국 대각선 교섭에 참여하되, 비정규직문제를 비롯해 금속노조가 요구하는 소위 '중앙의제'에 대한 협의는 거부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현대차의 경우 29일, 기아차 28일, 쌍용차 28일 또는 29일 각각 대각선 교섭이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

농·수·축산식품 '수출 잘되네'

올들어 13억달러 ... 작년보다 25% ↑

농·축·수산물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4월 총 68만6천, 13억5천100만 달러어치 농·축·수산물 수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물량 및 금액기준으로 각각 12.6%, 24.6% 늘어난 규모다.

품목별로는 특히 ▲버섯류 180% (수출액 560만달러) ▲인삼 40.9% (3천100만달러) ▲가금류 44.0% (360만달러) ▲오징어 등 연체동물 60.1% (1억1천만달러) ▲돼지고기 33.3% (280만달러) 등의 증가율이 높았다. 채소·김치·과일도 각각 16.9%, 12.3%, 17.0% 늘었다.

수출 대상국가별로는 대(臺) 아세안(ASEAN) 수출 증가율이 53%로 가장 높았고, 인삼·과일·오징어 등의 호조에 힘입어 중국 수출액이 40.3%, 과일·가공식품·김 등을 중심으로 러시아 수출액도 37.2% 증가했다. 최대 수출시장인 일본 수출액 역시 4억4천600만달러로 작년동기보다 21.5% 늘었다. /연합뉴스

기업 공채 줄잇는다

글로벌·빙그레 등 신입 채용

상반기 공채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주요 기업들의 신입사원 채용소식이 줄을 잇고 있다.

25일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영업관리, 일반관리, 보험업무 등 전 부문에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8월 졸업예정자, 다음달 전역예정인 장교면 전공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다.

글로벌비스는 국제물류, 국내물류, 중고차사업 부문 등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자격요건은 4년제 정규대학 이상 졸업(예정)자로 전공제한은 없다. 빙그레는 제품개발과 생산관리, 환경관리, 영업관리 분야에서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나 8월 취득예정자면 지원할 수 있다.

S&T대우는 생산기술, 품질기술, 화학분야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4년제 대학 이상에서 관련학과 전공자로, 생산기술과 품질기술 분야는 전공학점 3.0 이상, 토의 600점 이상, 화학 분야는 전공학점이 3.5 이상이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교보증권은 지정영업과 분사영업, 분사지원 부문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와 오는 8월 말 내내 2월 졸업예정자로 전공제한은 없다.

이밖에 대웅그룹, 삼표, 한세실업 등에서도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합소아현의원(광주/전남)	원무/수납/간호조무사/운동치리사/코디네이터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27	062-974-1675
우양물산	[영업직/생산직]정규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27	062-603-0061
(주)우양물산	헤니콜/항공&패키지/월드자이인 직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28	062-225-3636
(주)캡스텍	[광주] 종합병원 보안요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28	062-364-6312
(주)웅문	병동컨테이너 수리 및 세척직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05/28	061-794-1528
해성산업개발(주)	경리 및 관리업무 경력직 사원	초대졸/경력1년	1200~1400	05/30	062-374-6311
창영택전문점	CS강사(기업사내교육/고객관리교육/CRM)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5/31	062-520-6031
(주)하나에드림	광고 실사 디자이너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5/31	062-974-0041
롯데백화점 코코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생과일주스 판매 및 관리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31	011-381-0150
(주)한진디엔비	무역사무원/기계설계원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5/31	062-953-4510
GM대우자동차(남부영업소)	2008년 신입 및 경력직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31	062-653-5828
(주)휴넷	[고정급150만원]SK 텔레콤[광주] 멀티CRM센터 상담원	고졸/경력무관	2400~2600	06/02	011-299-7000
종일산업(주)	공무과 인원	고졸/경력3년	회사내규	06/02	062-941-7891
이리솔	통신 영업 및 고객관리 사원	고졸/경력무관	3000~3200	06/02	070-7517-9875

(광주지프코리아 512-6210 제공)